

[PRESS KIT]

(주)북아이피스



좋은 교재 더 잘 쓰이게, 솔북

2023년 09월

1. 회사소개

- (1) FACT SHEET
- (2) 창립 배경
- (3) History
- (4) 주요기사

2. Founder/Members

3. 수업 콘텐츠 플랫폼 ‘솔북(SOLVOOK)’

- (1) 솔북의 6가지 역할
- (2) 솔북의 기술
- (3) 솔북 이용기

4. 보도자료

- (1) 2023-07-27 문저협 UCI 활용 업무협약
- (2) 2023-07-26 시리즈A 투자유치

1. 회사소개

(1) FACT SHEET

회사명(법인명)	(주)북아이피스
공동 창업자	윤미선, 이경재
창립일	2020년 12월
임직원수	30명
투자유치 현황	<p>1. Seed 3.5억원 (2021년 3월) : 프라이머,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p> <p>2. Pre-A 13억원 (2022년 4월) : KB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소풍벤처스</p> <p>3. Tips 5억원 (2022년 10월)</p> <p>4. 시리즈A 58억원 (2023년 6월) : K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SL인베스트먼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서울경제진흥원(SBA) 외</p>
누적 투자유치 금액	79.5억원
서비스 카테고리	에듀테크, 디지털교재, 플랫폼, IP, 저작권, 라이선스, 교육 콘텐츠
서비스 브랜드	솔북(SOLVOOK)
위치	<p><u>본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15층</u></p> <p>연구소: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21, 서울창업허브 509호</p>
홈페이지	https://solvook.co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OLVOOK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okips

Contact

북아이피스 윤미선 대표 misunyun@bookips.com / 010-9256-5621

호기PR 민호기 대표 bernays@hokipr.com / 010-9589-6896

(2) 창립 배경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교육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비스형 에듀테크들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목적에 맞춘 교육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교육 콘텐츠’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교육 시장의 핵심은 바로 ‘교육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중심으로 진화하는 교육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라이선싱이 원활해야 합니다. 콘텐츠 중심으로 진화하는 교육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콘텐츠의 저작권 라이선싱이 원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콘텐츠 시장은 저작권 라이선싱이 원활하지 않아 성장이 지연되고 저작권 침해도 만연해 있습니다. 합법적 이용환경과 합리적 거래조건으로 저작권 라이선싱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History

- 2020년 12월 (주)북아이피스 설립
- 2021년 03월 Seed 라운드 투자 유치(3.5억원)
- 2021년 10월 쏘북 파일럿 서비스 오픈
- 2021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살림 데모데이 우승(서울특별시장상)
- 2022년 03월 와이비엠 저작권 이용 활성화 협약
- 2022년 03월 NE능률 저작권 이용 활성화 협약
- 2022년 04월 Pre-A 라운드 투자 유치(13억원)
- 2022년 06월 지학사 저작권 이용 활성화 협약
- 2022년 05월 쏘북 클래스 베타 서비스 오픈
- 2022년 07월 쏘북 베타 서비스 오픈(영어 부문)
- 2022년 10월 Tips 선정(5억원)
- 2023년 03월 대치동 내신자료관 오픈
- 2023년 03월 네이버 웨일 스페이스 업무 협약
- 2023년 05월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모델 지원사업 협약
- 2023년 06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가교육과정 분류체계 지원사업 협약
- 2023년 06월 시리즈-A 라운드 투자 유치(58억원)
- 2023년 07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국가콘텐츠식별(UCI) 활용 저작물 유통 협약

(4) 주요기사

① 기업 활동

[북아이피스, 프라이머와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 2021.07.02 플랫폼

[북아이피스, 교재저작권 플랫폼 '쏠북' 베타서비스 개시](#) 2021.10.08 이데일리

[와이비엠\(YBM\), 교재저작권 플랫폼 '쏠북' 이용 협약 체결](#) 2022.03.21 매일경제

[교재저작권 플랫폼 '쏠북', 열음,북아이피스 등과 3차 체결](#) 2022.03.21 한국경제

[NE능률, 교재저작권 플랫폼 '쏠북' 통해 교재 콘텐츠 유통한다](#) 2022.03.28 플랫폼

[북아이피스, 저작권 걱정 없는 강의 솔루션 '쏠북 클래스' 선보인다](#) 2022.05.22 전자신문

[지학사, 교재저작권 플랫폼 '쏠북' 이용 협약](#) 2022.06.17 테크월드

[북아이피스, 교재저작권 라이선싱 플랫폼 '쏠북' 베타 서비스 출시](#) 2022.07.14 G밸리뉴스

[年 수백만원 들던 교재 저작권료, 쏠북이 낮췄다...프리A 유치](#) 2022.08.05 한국경제

[교재 저작권 라이선싱 플랫폼 쏠북, 정부 기술 투자 팁스\(TIPS\)](#) 2022.09.16 매일경제

['틱톡'으로 교육·정보 콘텐츠 제공... Z세대의 '휴대폰 속 선생님'](#) 2022.12.22 조선일보

② 인터뷰

["교육 업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합니다" 북아이피스 윤미선 대표](#) 2021.10.29 플랫폼

“예전 소리바다에서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하던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 기억하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애플처럼 큰 기업이 아이팟을 앞세워 인식을 조금씩이라도 바꾼거잖아요. 교육업계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는 봐요.”

[\[비바100\] "'1조 규모' 국내 교재 저작권 시장, 플랫폼이 열쇠"](#) 2022.07.05 브릿지경제

“쏠북에서는 강사들이 기존 저작권료 대비 100분의 1 가격으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메가스터디 등 거대 인터넷 강의 기업의 경우 저작권료로 교재 1권 당 200만~300만원의 가격을 지불했다. 베스트셀러의 경우 1권당 저작권 사용료가 1000만원이 넘고 최대 2000만원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쏠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교재 등을 만들어 파는 업체들은 연간 50만~100만원, 개인 강사 등의 경우는 2만~10만원 정도면 기존 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뷰\] 북아이피스, "교재 저작권 해결로 저작자-이용자 상생 구조 실현"](#) 2022.08.22 스타트업투데이

“미래 교육은 점점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학생 개인에게 맞춘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교과서, 참고서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학생과 접촉하는 현장 교육에서 더 생생하고 세밀한 파생 콘텐츠로 원활히 전환돼야 한다. 교재 저작권 해결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

[“한 줄도 안쓴 학원 교재로 13억원 투자 받은 방법이요?”](#) 조선일보 2022.09.19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대부분의 학원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고질적인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대면 교육시장이 성장하려면 교재 저작권 문제가 선결돼야 했다. 2020년 독립해 북아이피스를 차렸다. 저작권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통제된 환경 안에서 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떠올렸어요. 강사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합법적으로 교재를 활용하고, 출판사는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이란, 작은 단위(Small learning unit), 짧고(Short-term), 한번에 소화가능(Digestible)한 학습 콘텐츠/액티비티를 말한다. 최근 교육 영역에서 마이크로러닝은 차세대 교육훈련의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의미단위의 짧은 학습객체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적시적이고 개인화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혼합한 교육 방식을 말한다.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이 되거나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한다. 혼합형 지도나 하이브리드(hybrid), 기술 매개 지도(technology-mediated instruction), 혼합 모드 지도(mixed-mode instruction)등 다양한 표현을 쓰기도 한다.

***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교육콘텐츠	교사의 수업 진행이나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교수 학습 자료의 통칭.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저작되어 다양한 교수매체를 통해 구현됨.
교재 (출판교재)	교육에 필요한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참고서 등 출판된 교육 도서를 의미함.
부교재 (수업자료)	부교재란 수업이나 학습 과정에서 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재로서, 문제집, 학습지, 수업 자료 등을 의미함.
교재 저작권	교재를 창작한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

2. Founder/Members

■ 윤미선 CEO(Co-founder)



현 북아이피스 **CEO**

교육시장 네트워크 보유, 에듀테크 전문가

(주)에스티유니타스 학원, 과외 **C2C** 교육 플랫폼 신사업 총괄

SaaS 기반 **LMS** 솔루션 **Academy Cloud** 창업 및 매각

일본어 수험서 **6** 권 총괄 저자(길벗 시나공)

50만 교육 커뮤니티 운영자 (**10** 년 간 총괄)

한양대학교 경영학 전공

■ 이경재 CSO(Co-founder)



현 북아이피스 **CSO**

사업 전략 및 마케팅 전문성

(주)이엠씨앤씨, (주)더퀸AMC 등 콘텐츠 사업 부문 총괄

(주)팬택 해외마케팅, 해외마케팅커뮤니케이션 팀장

(주)금강기획(現 이노션) 해외브랜드광고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 전공, 사회복지정책 박사과정

■ 이경엽 CTO



현 북아이피스 **CTO**

기술 전략 및 솔루션 전문성

(주)스페이스워크 CTO 전사 기술 및 제품 총괄 **5**년

(주)덕인 기술팀장 겸 알고리즘 엔지니어, 엑스레이 사업부 **3.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공학 전공, 전산학 석사

■ 김관백 COO



현 북아이피스 **COO**

플랫폼 제품 & 비즈니스 **Growth** 전문가

엔라이트(주) 에너지 플랫폼 제품 & 사업 총괄, **CPO**

(주)에스티유니타스 플랫폼 신사업 총괄 본부장, 등기이사

피키캐스트(주) 사업 전략 & 서비스 운영 실장

LG이노텍(주) 전략기획담당 사업전략, 신사업, **M&A**

중고등 진로 & 교육 컨설팅 서비스 창업 경험,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전공

3. 저작권 걱정 없는 디지털 교재 플랫폼 쏘북(SOLVOOK)



(1) 쏘북의 6가지 역할



① 교재저작권 라이선싱

: 플랫폼을 통한 저작 재산권의 거래 중개

저작권 자에게는 클라우드 기반의 DRM 환경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없는 저작물 이용을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고가의 기업형 단일 요금제를 혁신하여 이용 수준과 방법에 따라 세분 요금제 제공하는 플랫폼 방식의 저작권 라이선싱 서비스입니다. 출판 교재에서 다종 다량의 부교재에 이르는 모든 교육콘텐츠의 상업적 이용과 거래를 포괄합니다.

② 저작권 보호 센터

: 저작권 라이선싱 인증 체계 및 라이선싱 사후 관리

교재의 라이선스 해결 여부를 확인하고 교재 기반의 파생 저작물을 등록, 식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작권자를 위한 별도의 어드민을 통해 라이선스 거래 자동화와 라이선싱 사후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③ 라이브러리

: 정식 출판 교재에서 현장 부교재까지 통합 이용

플랫폼 이용자에게 배정되는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로 정식으로 이용 권리를 확보한 교재에서 수업 영상, 현장 부교재 등의 파생 콘텐츠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출판 교재와 교재 기반의 현장 부교재 간 관계를 나타내는 고유의 교육콘텐츠 검색 관리 기능으로 교재 기반 교육 실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④ 스튜디오

: 라이선싱 계약에 연동한 합법적 자료 에디터

라이브러리와 연동되어 있어, 이용 권리를 확보한 출판 교재를 계약에 명시된 저작권 이용범위 내에서 손쉽게 참조, 이용, 발췌, 편집할 수도록 합니다. 분할 화면과 드래그앤드롭 방식의 편집과 저작 기능, 수업 목적에 맞는 부교재 제작에 특화된 다유형의 템플릿 제공 등 출판 교재를 현장 맞춤 부교재로 가공하는데 효과적인 교육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에디팅 툴입니다.

⑤ 클래스

: 라이선싱 계약에 연동한 합법적 온라인 수업 솔루션

이용 권리를 확보한 교재와 부교재를 온오프라인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수업을 연동한 보강 영상, 보충 영상이나 커리큘럼 기반의 인강의 운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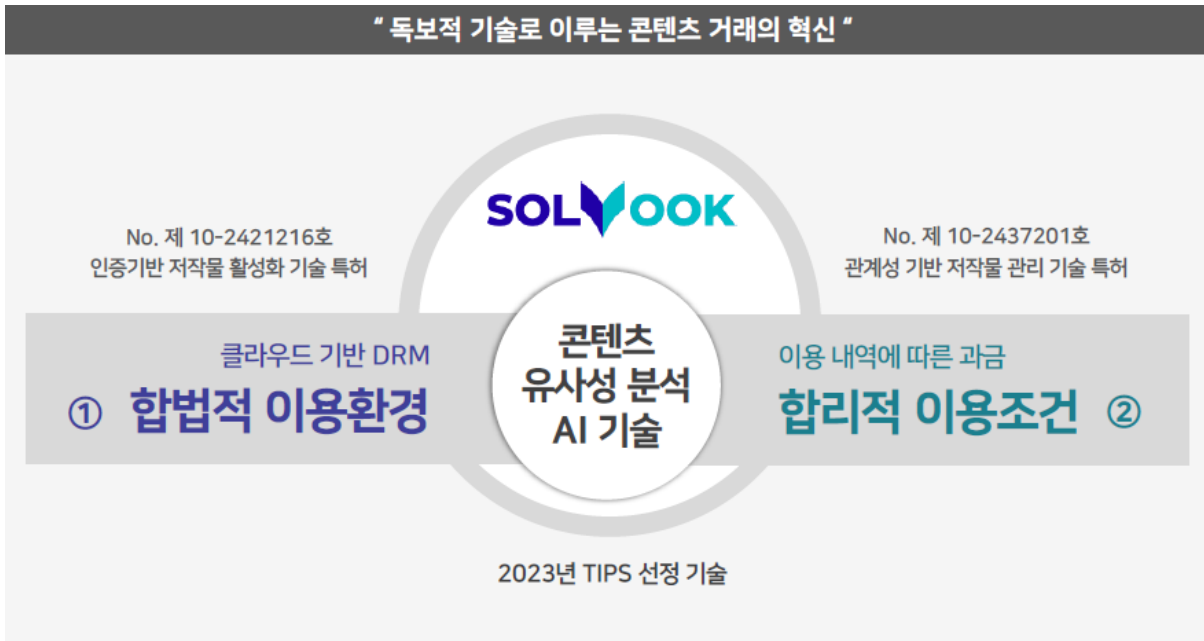
⑥ 학습 교재 마켓

: 라이선싱 계약에 연동한 합법적 맞춤 자료 시장

출판 교재에서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다중·다량의 부교재까지 디지털화된 학습 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합법적으로 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교재 마켓입니다. 출판 교재와 다양한 부교재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유의 교육콘텐츠 검색 관리 기능으로 부교재와 자료 시장에서의 출판 교재 중심성을 강화했습니다.

(2) 쓸복의 기술

“ 독보적 기술로 이루는 콘텐츠 거래의 혁신 ”



① 합법적 이용 환경

: 무단 열람 및 복제 방지 기능 &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통제 기능

최신 DRM 이 적용된 클라우드 기반의 저작물 이용 환경으로 교육콘텐츠의 합법적 이용을 조건화 하였습니다. 이후, 콘텐츠 간 유사성을 분석하는 AI 기술 적용으로 보다 실효적인 DRM 이 적용될 것입니다.

② 합리적 이용 요금

: 이용자 유형에 따른 세분 요금제 & 이용 기간 설정이 가능한 구독형 요금제

기업 기준의 단일한 저작권료 체계를 바꾸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라이선싱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이후, 콘텐츠 간 유사성을 분석하는 AI 기술 적용으로 문제나 지문 등 컴포넌트 단위의 이용 수준에 따른 자동 과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3) 쓸북 이용기

■ JELA 에듀 서혜진 대표 원장

영어 교육에 몸 담은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그동안의 강사 경력, 영어교육 석사학위 취득, 교육학 박사학위 과정 진행까지 모든 Academic journey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리게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은 만큼 제 자료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상으로,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쓸북의 철학에 공감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쓸북이 실천하는 ‘올바름’이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차근차근 성장해가도록 독려하는 교사로서의 성실함은 그 올바름과 분명 맞닿은 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

4. 보도자료

(1) 2023-07-27 문저협 UCI 활용 업무협약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북아이피스, 국가콘텐츠식별체계 활용 저작물 유통 업무협약 체결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활용 문저협 저작물 유통 체계 구축
- 양사 국어 교육 콘텐츠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기로



사진1. 북아이피스-문저협 UCI 활용 저작물 유통 업무 협약식
(문저협 김동현 사무처장(좌), 북아이피스 윤미선 대표(우))

(2023-07-27)

저작권 걱정 없는 디지털 교재 플랫폼 쏘북을 운영하는 북아이피스(대표 윤미선)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사장 김종율, 이하 문저협)는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를 활용한 저작물 관리 및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북아이피스와 문저협은 7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국가콘텐츠식별체계 기반 저작물 유통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북아이피스와 문저협은 문저협의 어문·이미지 등 관리 저작물을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북아이피스는 YBM, NE능률, 지학사, 다락원, 천재교육, 개념원리, 씨듀, 미래엔, 금성출판사 등의 출판사와 교과서 및 참고서 같은 출판교재의 저작권 라이선싱 중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필수적인 교육 참고자료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콘텐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 걱정 없는 디지털 교재 플랫폼 쏘북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문저협과의 협약을 통해 문저협이 관리하고 있는 문학 예술 저작물을 유통하는 UCI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문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학·학술·예술 분야의 저작권신탁관리를 허가받은 이 분야 유일의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이다. 문저협은 본 사업을 위해 문저협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을 북아이피스가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관리 저작물의 새로운 정산 및 유통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양사의 시범사업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국가콘텐츠식별체계를 활용한다.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란 콘텐츠에 부여하는 유일하고 영구한 국가 표준 식별체계이다. 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바코드처럼 콘텐츠에 UCI 식별자를 부여하여 데이터정보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서로 연계된 식별체계는 음원, e-book, 유통내역추적, 참조연계서비스(reference linking service)등 콘텐츠 유통에 필요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문저협 김종율 이사장은 “문저협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UCI 전략적 보급 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문학예술 분야의 저작권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며 “금번 협약은 그간의 노력으로 디지털 저작권 유통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북아이피스 윤미선 대표는 “합법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문저협과 함께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라며 “국가콘텐츠식별체계를 활용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콘텐츠 유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 2023-07-26 시리즈A 투자유치

[보도자료]

에듀테크 기업 북아이피스, 시리즈 A라운드 58억 원 투자 유치

- 저작권 걱정 없는 디지털 교재 플랫폼 '솔북' 운영사
- 합법적, 합리적 교재 활용 위한 서비스 고도화 지속



사진1. 에듀테크 스타트업 기업 북아이피스 임직원

(2023-07-26)

저작권 걱정 없는 디지털 교재 플랫폼 '솔북(SOLVBOOK)'을 운영하는 북아이피스(대표 윤미선)는 58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북아이피스는 K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SL인베스트먼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서울경제진흥원(SBA) 등으로부터 58억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북아이피스는 2021년 3월 시드 라운드 프라이머,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3.5억원, 2022년 4월 프리A 라운드 KB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소풍벤처스 13억원 및 팁스 지원금을 합쳐 약 80억원의 누적투자를 유치하게 됐다.

북아이피스의 솔북을 활용하면 저작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학원강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자료 등 교재의 합법적 활용이 가능하다. 학원, 에듀테크 등 교육 기업은 물론 개인 강사도 교재 저작권 걱정없이 수업하고, 직접 만든 자료 등 2차 저작물도 다른 강사나 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북아이피스는 YBM, NE능률, 지학사, 다락원, 천재교육, 개념원리, 씨듀, 미래엔, 금성출판사 등의 주요 교육 출판사의 출판교재 저작권 라이선싱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쏘북을 통해 1,500여 종의 출판교재와 8,800여 종의 부교재를 이용할 수 있다. 영어 교재의 경우 전국 학원강사와 관계자 1만명이 쏘북에서 직접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북아이피스는 저작권 라이선싱과 라이선싱을 통해 만들어진 부교재의 이용과 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쏘북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차 저작물인 부교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쏘북 스튜디오의 기능을 개선하고, 학습 교재 마켓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AI를 활용한 콘텐츠 유사성 분석 연구 개발과 국가 표준 식별 체계 UCI 연동 및 국가교육과정 기반의 분류 체계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한 개발자 총원 등 인재유치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 공동 리드 투자사로 참여한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의 이기하 대표는 “재가공이 많이 일어나는 교재 시장에서 라이선싱은 필수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교재 수요를 저작권 문제없이 충족해줄 수 있는 플랫폼은 쏘북이 유일하기 때문에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규 투자한 블루포인트파트너스 김유정 투자팀장은 “교재 무단 이용으로 중고생 교재 콘텐츠 시장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형성된 시장 규모가 50억원 수준에 그쳐 있다”라며 “쏘북은 교재 콘텐츠를 합법적, 합리적 이용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플랫폼으로 이미 여러 출판사들이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투자이유를 밝혔다.

북아이피스 윤미선 대표는 “올 한 해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정부차원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인 교재 저작권의 합법적 활용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쏘북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ontact

북아이피스 윤미선 대표 misunyun@bookips.com / 010-9256-5621

호기PR 민호기 대표 bernays@hokipr.com / 010-9589-6896